



시개단
귀국 좌담회

중동지역 첫 파견 인쇄물 수출 가능성 높다



- 일 시 : 2003년 6월27일 5시
- 장 소 : 인쇄정보센터 7층 회의실
- 사 회 : 유창준(본지 편집국장)
- 참 석 자 : 이국홍 수출진흥협의회 회장
- 류명식 해인기획 사장
- 신균성 평화당인쇄 부장
- 강준호 한진피앤씨 과장
- 이지훈 홍보컴 부장
- 전복순 한구아시아 이사
- 이창호 인쇄연합회 부장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인쇄물수출진흥협의회(회장 이국홍·한구아시아 대표)는 6월9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청과 인쇄연합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지원으로 국내 인쇄업계로는 처음으로 중동지역에 인쇄물시장개척단(이하 시개단)을 파견했다.

한구아시아, 해인기획, 세종문예사, 태양당인쇄, 한성인쇄, 한진피앤씨, 홍보컴 등 7개사가 참여한 이번 시개단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두바이를 방문하여 활발한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6월27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 7층에서 '시장개척단 귀국 좌담회'를 개최했다.

유창준 본지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시개단 단장으로 활동한 이국홍 수출진흥협의회 회장과 류명식 해인기획 사장, 신균성 태양당인쇄 부장, 강준호 한진피앤씨 과장, 이지훈 홍보컴 부장, 전복순 한구아시아 이사, 이창호 인쇄연합회 부장이 참석했다.

사회자: 중동지역에서 인쇄물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귀국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피곤하고 바쁘실텐데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중동의 여운이 남아있겠지요. 시장개척을 하시고 유적지도 돌아보시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신 것 같네요. 매번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국홍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위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중동지역으로 파견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국홍 회장: 우리의 활동 사항을 홍보해 주시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시개단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개단 파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인쇄물시장개척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듣는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척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프린터스 트레이드 미션 · printers trade mission' 이라고 합니다.

인쇄는 아시는 것처럼 선진문화산업입니다. 이런 연유로 이제까지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나 구라파 쪽에 시개단을 파견했는데 그곳은 여러 번 가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기 위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시장이 떠오르는 시장이고 3개지역은 가야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두바이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시개단을 보내는 목적은 항상 인쇄물을 수출해야 되겠다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반도체 이외에도 인쇄기술도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자: 이번 시개단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중동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류명식 사장: 중동지역은 처음 방문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방문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직접 가서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경우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몇몇 업체의 경우 상당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전복순 이사: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인쇄물 수준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회에 우리나라의 인쇄물을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리고 우리의 인쇄수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는 중동무역의 중심지더군요. 두바이는 아라비아만 연안에 위치해 있어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후국(부족의 수장(首長)이나 실력자에게 지배되는 국가) 중 유일할 국제 무역항인데 아시아의 홍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쇄물 수출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을 방문하면서 또하나 놀란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중국제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중국이 저가를 내세워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중동지역 역시 중국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저가정책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짜구려'란 인식이 그것이지요. 중국제품은 고품질 인쇄물도 깎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등 값싼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삼성 등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어 국가 신임도가 높습니다. 이에 고품질 저가공략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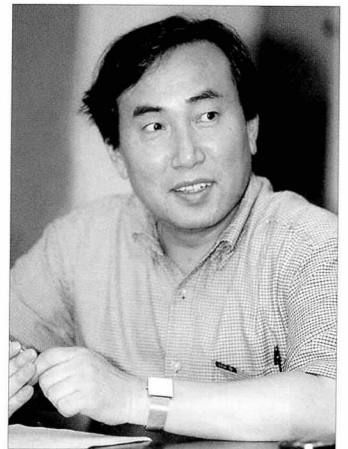
강준호 과장: 우리 회사는 상업인쇄물 외에도 통기성 필름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3개국에 통기성 필름의 수출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지훈 부장: 전복순 이사님 말씀처럼 두바이는 아시아의 홍콩이라 불리는 곳으로, 작지만 큰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고대문명 등을 관광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국홍 회장

"시개단을 보내는 목적은 인쇄물 수출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반도체 이외에도 인쇄기술도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류명식 사장



신균성 부장

지방 업체들도 시개단 참여를



◆ 시개단 상담모습

이국홍 회장: 앞서 세분께서 말씀 하신대로 인쇄의 질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탈리아에서 인쇄한 고급 인쇄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집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로 저가시장을 공략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시개단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국홍 회장: 이스라엘 대사관처에 초청받은 일이 기억에 납니다.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쇄와 출판이 뭐가 다른니까?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사님 참 솔직하십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쇄와 출판의 차이를 모르는 등 인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는 현지 상무관과 코트라 관장 등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인쇄와 출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제서야 아~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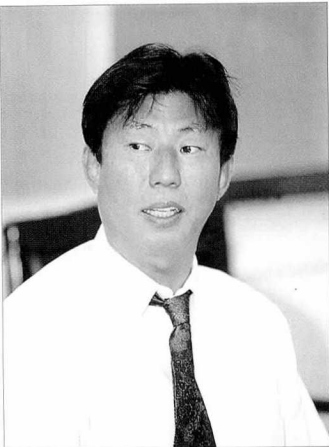
이지훈 부장: 코트라 직원들의 인쇄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낮습니다. 인쇄물도 한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와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와 맞는 업체들을 소개해 준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창호 부장: 이번에 시개단 파견장소가 미주지역이 아닌 중동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지훈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관이 인쇄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개단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이국홍 회장: 중동지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맨 처음 아랍어를 접했을 때 과연 이것이 똑바로 잡은 것인지 거꾸로 잡은 것인지도 모를 만큼 아랍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바이를 방문했을 때 아랍어로 제작된 캘린더를 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출력이 될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문구업체를 가보았지만 언어 때문에 안된다는 대답만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인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관세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상업적 가치의 유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데 카탈로그나 사은품 등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제품이라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에 한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경우 자동차 등이 많이 수출되면서 무역불균형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이익에 상관없이 30~40%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국가의 해외협력기금을 지원받아 현지 교과서 입찰에 참가를 하고 그것을 지원하면 관세라는 울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의 인쇄물 수준을 알리는 일거양득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호 부장



이지훈 부장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IT산업, 미사일이나 첨단 제어장치, 다이아몬드 세공이 유명합니다. 이에 이런 주력 상품에 맞춰 인 쇄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같은 중동지역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마다의 특성을 살려야 수출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명식 사장: 이집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킨토시 환경이었습니다. 때문에 CD에 트루타입 서체를 담아오거나 PDF파일로 온다면 인쇄가 가능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쇄물이라는 것이 글자 하나만 빠져도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뒷이야기를 하자면 시개단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날 예루살렘에서 폭탄테러가 있었습니다. 전쟁상황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 약간의 불안이 있었지만 막상 시개단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 과장: 사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문하는 나라들이 서로 적대국이다 보니 적국에서 넘어오는 경우 입국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국홍 회장: 무서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중동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역을 현지무역관에서 하거나 유학생, 교수님들이 해 주시는데 두바이의 경우 늘씬한 미녀들이 통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두바이는 통역을 인물보고 뽑습니까?하니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스텀어디스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먼 타국에 와서 전쟁의 공포가 있었지만 이러한 에피소드 때문에 모두들 기분이 좋아졌지요. 때문에 통역이 필요없는 어떤분 - 체면을 생각해서 누군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 은 자기도 통역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신군성 부장: 올해로 세 번째로 시개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나 두바이의 경우 상담에 적극적이라 노력만 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떠난 만큼 성과가 좋았습니다.

사회자: 이창호 부장님. 앞으로의 시개단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호 부장: 지금이 5번째 시개단인데요. 7개사 9명이 참가를 했는데, 사실 금년의 참여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중동전쟁과 사스 등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사실 연합회에서 각 업체당 1백만원, 중기청에서 3백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트라 등 해외업무에 있어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시개단에 참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 시개단은 다시 미국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선 1안으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일본, 2안으로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국홍 회장님께서 금번 시개단 파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국홍 회장: 새로운 시장, 새로운 경험을 목적으로 했던 금번 시개단은 대 만족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나라별로 종교와 공휴일이 달라 예상했던 10일보다 4일이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종전에 이창호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했으면 하고, 또한 지방업체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피곤하신데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이국홍 회장님을 비롯한 시개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자리를 통해 시개단 활동을 종합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 임남숙 기자 · 사진 : 이용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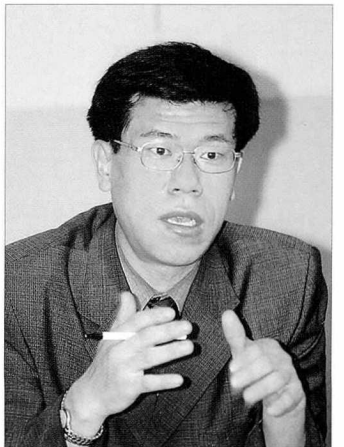


전복순 이사

“두바이는 중동무역의 중심지더군요. 아라비아만 연안에 위치해 있어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 후국 중 유일한 국제 무역장이 있는데 아시아의 홍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쇄를 수출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준호 과장



유창준 국장